

# 버추얼아이돌의 아바타 모욕 손해배상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K-POP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실제 인간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의 아바타로 활동하는 '버추얼 아이돌(virtual idol)'도 주목받고 있다. 버추얼 아이돌 시장은 2028년에는 전 세계 시장규모가 174억달러(약 25조 2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버추얼 아이돌의 활동은 보통 본체(사람)가 따로 있고, 본체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채 모션캡처 기술 등을 활용한 본체의 아바타 등을 통해서 그 활동이 이뤄진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아바타에 대한 모욕적 표현 등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하급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5. 14. 선고 2025가단50721 판결)이 선고돼 소개해 본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들은 버추얼 아이돌 그룹 P의 본체들이고, 피고는 SNS 등에서 아이돌 그룹 P나 그 멤버들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모욕적

인 표현을 사용한 글, 영상 등을 게시한 사람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이하 '본건 게시행위')를 문제 삼으면서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위 소송에서 피고는 “아이돌 그룹 P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에 불과하고 각 멤버의 실제 본체는 비공개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아이돌 그룹 P와 실제 본체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본건 게시행위의 피해자가 원고들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모욕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법원은 위 소송의 특수한 쟁점(아

바타에 대한 모욕적 표현 등)을 고려해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융합된 메타버스(Metaverse)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아바타에 대한 모욕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게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아바타가 그 사용자와 동일시되고 있는 경우라면 아바타에 대한 모욕행위는 실제 사용자에게 대한 모욕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도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원고들이 아이돌 그룹 P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은 매니지먼트사의 정책과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이미 알려져 있으므로 본건 게시행위의 피해자를 원고들로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위 판결은 사람(본체)을 대신하는 아바타나 캐릭터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사건 등의 피해자 특징이 문제되는 여러 동일 또는 유사사건에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바른

## 스테이블 코인 ‘옥석 가리기’의 시간



김지수첩

안 승 진  
(금융부)

최근 국내 주식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최고 수혜주로 꼽히는 카카오페이 주가는 올해 초 2만 6000원 수준이었으나 지난 6월 한 달에만 2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해 9만 4000원까지 치솟았고,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이 제기했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우려에도 강세를 지속 중이다.

간편결제 앱에서 시작된 기대감은 모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강세로 이어졌다. 은행들이 잇따라 스테이블 코인 상품 선점에 나서자 금융주도 상승했다.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P2E(게임 플레이해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기대

감에 게임주까지 강세를 보였다. 스테이블 코인은 ‘테마주’를 넘어, 마치 성공을 담보하는 ‘보증수표’처럼 보인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고조될수록 거품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고정돼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가치를 생산할 수 없다. 발행기관은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에 따라 발행량을 늘리고, 늘어난 발행량을 기반으로 국제·예금 등 담보성 자산을 확보해 수익을 발생시킨다.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약 2500억달러 규모다. 이 가운데 점유율 상위 5개 코인이 전체의 96%(2400억달러)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대부분에 해당하는 2200억달러 중 1590억달러가 테더(USDT), 620억달러가 USDC다. 가치가 일정한 일종의 ‘화폐’에 해당하는 만큼 유통량이 많고 신뢰도가 높은 상품에 수요가 집중됐다. 소비

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이 불편하고 매매도 어려운 코인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서다.

국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문턱을 크게 낮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해외와 비슷하게 발행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소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한국은행도 신뢰도가 낮은 스테이블 코인의 무분별한 발행은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더군다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선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없다. 입법을 주도하는 민주당도 발행 요건을 20억원, 30억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 입법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투자 열풍은 뜨겁지만, 침착하게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할 때다.

/asj123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7월 7일 (금 6월 13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서리가 내리니 얼음이 얼 것을 준비. 48년생 김칫국부터 마시다가는 낭패 본다. 60년생 친구의 조언으로 힘든 일을 결정할 수 있다. 72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라. 84년생 강을 건너어도 배는 소중히 보관.



소

37년생 은행 대출을 다 갚는 날. 49년생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61년생 인생은 자기 복대로 사는 것. 73년생 이직에 앞서지 말고 실력 배양을 하는 것이 도움. 85년생 당신은 부자입니다 라는 질문에 무슨 말을 할지.



호랑이

38년생 내가 웃어야 겨울도 웃는다. 50년생 쌓아온 실력 발휘로 남들의 부러움을 산다. 62년생 한발 물러서면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다. 74년생 원숭이띠와 의견대립을 조심. 86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뒤로 물러서야 할 것.



토끼

39년생 기쁨과 근심은 마음먹기 나름. 51년생 약속을 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메모하여 정리해놓자. 63년생 귀한 옥포이 드러내려면 준비하며 때를 기다려야. 75년생 마음의 질을 높이자. 87년생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이가 있다.



양

40년생 내가 믿음을 가져야 상대도 설득. 52년생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득하다. 64년생 주식거래 거품은 사라지고 아쉬움만 남는다. 76년생 사람을 분별하는 마음을 접어야 자신이 편하다. 88년생 무리한 산행을 건강을 해친다.



뱀

41년생 호의가 계속되면 상대는 당연한 권리로 착각. 53년생 자식 자랑에 입에 침이 마를 지경. 65년생 물을 두려워하면 수영선수는 곤란. 77년생 회사에서 내 것이 아니어도 아끼는 마음으로. 89년생 능력을 과신하다 실수를 한다.



말

42년생 재물이 들어오니 위로가 된다. 54년생 배우자가 있어도 외로운 것은 마찬가지. 66년생 반려동물에게 밥만 주지 말고 건강도 살펴봐라. 78년생 힘내라는 말보다 실질적인 힘을 줘라. 90년생 분홍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간직.



고양이

43년생 죽은 나무는 잘라놓고 발을 갈도록. 55년생 개천에서 용이 난 형국이니 좋은 일이다. 67년생 명예와 함께 축하도 받는다. 79년생 부모님께 대들지 말고 측은지심으로 보살피라. 91년생 내세울 만한 재력은 없어도 건강하기에 행복.



원숭이

44년생 남이 차린 밥상에 손가락 올리지 마라. 56년생 반성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68년생 칭찬 받고 기뻐할 일이 있다. 80년생 어려운 시국이지만 태양은 누구에게나 비춘다. 92년생 자신의 부족한 점은 불평보다 노력으로 극복을.



닭

45년생 주변의 마음을 얻지 못해 고독하다. 57년생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 긴축재정이 필요. 69년생 시간이 지나면 결심이 흐지부지되니 바로 시작하자. 81년생 만남을 잘 살펴서 피할 것은 피해 볼 일이다. 93년생 전로수정은 신중하게.



돼지

46년생 기대가 너무 커서 서운함도 크다. 58년생 필요 이상의 의미부여는 상황을 왜곡. 70년생 매일 뜨는 태양도 누군가는 다시 보길 간절히 원한다. 82년생 보이진 않지만 굵은 길에서 선도를 추월한다. 94년생 가려는 사람은 붙잡지 마라.



돼지

47년생 남이 던져주는 희망에 기대지 말도록. 59년생 지치고 힘들 때 가족을 생각하고 힘을. 71년생 최소한 한 가지 일이라도 능동해하자. 83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남. 95년생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할 것은 아니다.



## 김상회의四季

외골수

외골수라는 말이 있다. 어느 것이든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사람을 말한다. 사주 십성十星 중에도 외골수 성향을 보여주는 게 있다. 편인이 그것이다. 편인은 글자 그대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의미다. 그래서 편인은 세상만사를 자기만의 시선으로 보거나 약간은 비뚤게 보기도 한다. 편인은 상대방을 읽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자기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나 마음 등을 잘 포착한다. 독창적이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면이 있어서 깊이가 필요한 전문직의 길을 걸으면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학문을 연구하거나 인술이라고 불리는 의료인 같은 직업에 적합하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선으로 사물을 보고 자기 분야에 매달리는 예술인도 편인 사주에게 잘 어울린다. 자기주장이 강해서 편인 기운이 강한 경우에는 주변과 불화가 생기는 일이 잦다. 심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예 단절하기도 한다. 사람의 일이란 세상의 일이란 선순환이 중요하다. 좋은 방향으로 서로 엇물리면서 이어져야 모든 게 매끄럽다. 그런데 자칫 선순환보다는 악순환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남들과 잘 어우러지는 선순환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닫힌 마음을 열어야 한다. 남들의 말을 잘 수용하고 자기와 다른 생각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자기 고집만 내세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자기가 틀릴 수도 있고 자기가 상대방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외골수라고 모두 주변과 충돌하는 건 아니다. 약점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언행을 조심하기에 전화위복이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http://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윤휘중 |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 2002년5월28일 제5705호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 2017년3월09일 제1809호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